

기고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 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향우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 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 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체크와 고 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 하고 제1회 추경시 5,700만원의 해외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 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 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위 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 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 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 의 경제활동지원 및 생활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등 새 로운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사항인 「완 도 변형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 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투자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 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의 보 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

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 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 들은 군민여러분과 함께 소통하 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 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 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자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 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 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제한 과 바이러스 연관성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속 기회 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 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일등은 앞으로 남은 임기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동안 완도군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 내 주신 군민여러분과 향우여러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社 說

땀질식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

6·17 부동산대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비 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근 김포와 과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추가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다음 달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 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7일 대책 발표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졌지만, 급등세가 지속하면 즉각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 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보다 0.22% 올라 6·17 대책 발 표 이전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는 0.39%, 인전은 0.34% 각 각 오르는 등 수도권의 상승 세가 두드러져 대책을 무색하게 했다. 규제에서 비켜 간 김포는 1.88%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 률을 기록했고, 과주도 지난주 0.01%에서 0.27%로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 에 일단폭격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 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잇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김포나 과주 등 수도 권 비규제지역을 겨냥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 정부 들 어 2년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하 에 집값 과열을 방지하다간 전 체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양극 화를 가속할 수 있기에 정부가 개입해 투기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충격 요법이 일상 화하면 시장의 내성도 커져 기 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동산 불안의 진앙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 켜주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으 나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수도 권, 지방의 아파트값이 연쇄 급 등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쯤 되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재 평가한 뒤, 잘못이 있으면 인정 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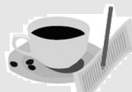
대표전화 (062) 229-6000
광 고 국 (062) 224-5800
기 사 제 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얼마 전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 지는 사건에 이어 계부에 의해 상 습 학대로 화상을 입은 9세 소녀 가 발견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 다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사 건에서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영유아 건

강검진, 장기결석여부 등을 종합 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추정해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 원은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 육 환경을 확인하는 ‘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1월부터 가정방문이 중단 된 상태고, 등교도 늦춰지면서 교 사도 이번 사건의 학대 사실을 파

악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심각한 수 준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로 만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연기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 고 있다. 더욱이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실직 등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만 큼 이들 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

다.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분노가 고스란히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 요하다.
정부에서도 반짝 관심이 아닌 적극적이고 꾸준한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학대 근절 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임을 명심 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